



2023  
KAU  
입학수기공모전  
모음집

새상을 향한 내 꿈을 향한 기회

**KAU**  
Korea Aerospace University



# Create New Routes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특성화대학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과 우주라는 넓은 무대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 목차

##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	4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강○윤	
우연히 UAM 등 항공 분야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6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정○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며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9
경영학부 김○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13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김○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내라고	16
경영학부 이○인	
여기서 끝내지 않고 현직자와 직접 인터뷰하며	20
경영학부 김○린	
항공전자라는 분야에 큰 매력을 느끼며	22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이○진	

##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다양한 시점에서 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김○정 ..... 24

미국의 속담 중 “Watched pot never boils.”라는 말이 있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정○민 ..... 27

꾸준함과 노력, 끈기 이 세 가지

스마트드론공학과 김○원 ..... 31

인생은 단 한번뿐이고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일

항공교통물류학부 이○은 ..... 34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색있는 생기부를 만들어라

소프트웨어학과 이○령 ..... 37

국내 유일 항공 우주 특성화라는 강점, 잠재력

경영학부 조○인 ..... 40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교과목 중에서는 특히 항공우주 분야와 가장 연관 짓기 좋은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집중해서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 2023학년도 수시전형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강○윤  
(군산고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때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척형으로 인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며 항공우주를 향한 목표를 이루기위해 준비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때,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에는 시력이 너무 안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꿈이었지만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항공우주를 향한 꿈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 전투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목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고3 수험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수정한 목표에 맞는 학교를 찾고 조금씩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에 대해 알면 알수록 미사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미사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의 다양한 발사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미사일의 원리, 미사일의 종류 등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의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기존과 차별화된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단가 절감 정밀유도 미사일 개발 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큰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가 저의 꿈을 뒷받침 해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공

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인재전형을 통해서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인만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꿈을 생활기록부에 어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항공우주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학교 행사가 있으면 항상 참여하였고, 관련이 없더라도 항공우주 분야와 조금이라도 연관지을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하였습니다. 교과목 중에서는 특히 항공우주 분야와 가장 연관짓기 좋은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집중해서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 된 학생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뽑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별화된 활동을 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직접 항공모함을 100:1 비율로 제작했던 것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노력은 당연히 공부였습니다. 아무리 비교과 내용이 좋아도 교과 성적이 부족하면 합격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기숙사에 들어갔고, 집에 오는 주말에는 독서실에 가는 등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역시 미래인재전형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짧게는 3년동안, 길게는 10년동안 항공우주를 꿈꾸며 준비했던 노력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였고,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면접 특성상 여러번 촬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원 영상의 시간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노력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꾸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항공우주라는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한가지 목표를 쫓 꿈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꿈과 관련된 분야를 진심을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친구들은 제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늘 저의 모든 활동에서 항공우주와의 관련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남들과 다르게 활동하려고 노력했던 습관들 역시 합격하는데 매우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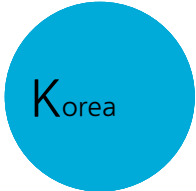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항공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항공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한국항공대학교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때가 되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되고, 만약 붙는다면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구요. 저에게도 역시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상담받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히 저의 꿈은 정말 뚜렷했기 때문에 꿈을 완벽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상담과 질문의 답은 한국항공대학교였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도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 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프로그램은 바로 에어버

스, 록히드마틴, 보잉에서 주관하는 대회들입니다. 이 대회들에서 수상을 하면 해당 기업이 있는 국가로의 해외탐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은 오직 한국항공대학교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해외탐방을 꿈꾸며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북한 미사일 도발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국항공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한국항공대학교에 대해 알고 있던 시기라서 제가 알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이 뉴스에 나오셔서 저의 목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한국항공대학교에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한국항공대학교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생활공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학생활공회는 국내 유일 글라이더를 체험해볼 수 있는 대학 동아리입니다. 현재는 글라이더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탑승해보지는 못했지만 벌써부터 기대되고 이거 하나만으로 한국항공대학교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열기구 타는 동아리,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고있었기 때문에 서울 생활에 대한 로망이 정말 컸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1달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매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꿈꿔왔던 서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한 것을 너무나 만족합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를 향한 꿈이 있다면 한국항공대학교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우주공학과는 전국에 몇개 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적다는 것을 미리 경험해본 학생으로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항공우주공학과 중에서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는 거의 최정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 항공우주 분야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한국항공대학교에 오는 것이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 입니다.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우연히 UAM 등의 항공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뉴스나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고 계속 찾아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 봤었던 항공대에 너무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던 것 같습니다.

## 2023학년도 정시전형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정○철  
(서현고등학교)



###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고등학생 시절을 생각해보면 여러 직업들을 찾아본든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 여러 과들을 찾아보든 딱히 흥미가 생기는 분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적에 따라 어느 대학의 생명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학과의 미래나 이 학과를 졸업한 후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목표 없이 반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삼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수를 하며 좀 더 제대로 공부해보기 위해 들어가게 된 기숙학원에서 전 지구과학2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2과목의 특성상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기도 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수와 대기, 우주의 다양한 현상의 원리들을 배우면서, 대학에서 이런 분야와 관련한 것들을 공부한다면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그 해의 마무리에 정시 지원을 하면서 저는 항공대라는 대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었기에 큰 관심없이 정시지원을 했었고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심을 갖고자 상반기에 알바를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우연히 UAM 등의 항공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뉴스나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고 계속 찾아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 봤었던 항공대에 너무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월부터 항공분야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시 입시를 시작하게 되었고, 원서모집을 하는 시기에 수시에는 논술로, 정시에는 가나다군 모두 항공대에 올인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논술에서는 타학과의 예비 3위로 마무리하게 되지만, 정시에서는 안정적으로 2개의 군에 합격을 받아서 항공전자정보공학부를 선택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자정보공학부이라는 학부에 대한 커다란 열망이 아닌 항공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입학하게 되었지만 현재 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정시 준비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은 7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초반에는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기 위해 작년에 사용했던 교재들과 써두었던 메모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기출문제들에 적용해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과목들의 부분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고쳐보면 좋을 지 찾아보고 스스로 연구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어, 수학, 영어등 여러 과목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과목에서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영어시험을 보면 아무리 다른 친구들과 같은 내용을 배우고 공부하더라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여 3-4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 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

라는 “i love you.”라는 간단한 문장을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받아들이지만 외국인은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문장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그 영상의 내용이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한 것이, '외국인은 그 문장을 당연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고 나서 이해하는 식이 아니라 영어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인다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냥 기출 지문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고 바로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장을 형광펜으로 칠해놓고서는 4-5회 정도 누적해가면서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이를 기존의 방법과 병행하여 계속 연습하였는데 처음에는 많은 의심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맘을 다잡고 꾸준히 한 결과 후에 9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90점대 점수를 받았고 수능에서는 아쉽지만 듣기 2점짜리를 하나 틀려 89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생각하는 합격요인은 바로 명확한 목표의식과 거기서 오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저는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전혀 없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나도 해야한다는 생각과 부모님의 조건없는 지원으로 인한 의무감, 죄송함을 이유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활 순간순간마다 항상 '왜?'라는 의문이 따라다녔고 얼마나, 어디까지 공부해야할 지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과 공부의 이유가 명확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저를 계속 불안하게 했지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그러한 안개 속에서 계속 불안감에 휩싸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가장 쉽게 도피할 수 있는 핸드폰 세상 속으로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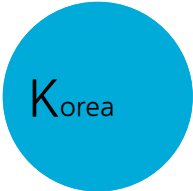
학교와 하고 싶은 분야가 분명하게 생겼기에 아무리 그날 하루가 고되더라도, 나의 실력에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침대에 누워 나의 목표를 되새기며 관련된 소식들을 찾아보고 또 미래를 상상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좀 더 나아가 저에게 이유 모를 편안함과 여유를 주었는데, 내가 분명히 수험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재 매일매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해주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어져서 정말 하나도 떨리는 것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었고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예비 향대인 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고 편협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험생시절 남들의 시선에 많은 신경을 쓰느라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었고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할 때 무시당할까봐 말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이나 같이 일하는 알바생 분들이 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버는 질문에 항공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대답을 말했을 때의 반응은 모두 “대단하다”, “멋지다”, “응원하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낮게 바라보고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이유와 상황 속에서 항공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은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볼 때는 극히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행동이라도 도전하고 노력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대단한 것이고 멋지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갖고 계속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랑하고 싶은 말

대학교에 와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 인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더 이상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에 스스로 알바, 교내 비교과 활동, 전공 공부, 동아리, 인간관계 등 많은 것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하





지만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던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기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저도 선배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Korea

Aero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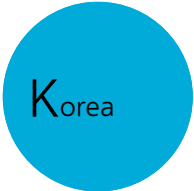
University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저는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음악 공부도 해보고, 춤도 배워보며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3학년도 수시전형

경영학부 김○권  
(명지고등학교)



##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23학번 경영학부 김○권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왜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진학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기업 경영과 더불어 외국어 공부에서도 흥미를 느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역학과 그리고 경영학과에 대한 추천을 받게 되면 서부터 무역학과나 경영학과에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왜 '항공대학교'의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항공대학교에 알게 된 것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항공대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이긴 하지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만 고집하던 그 당시의 저로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입시 준비를 하며 주변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얘기와 한국항공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에 대해 알아보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좋은 학교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 본 항공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경영 분야에 있어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화를 이끌어 나가는 학교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 잘 적응하고,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저의 사교적인 성격과 적성에 잘 들어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Code

share 과목'이라고 타 학부 과목 중 경영학부 전공 학점으로 인정 해주는 교과목 있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래밍, 코딩, AI 등 일반 경영에서 배우지 않는 커리큘럼을 통해 경영학부 학생들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 대학에 들어가 꼭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항공대학교만의 특화된 커리큘럼 학습을 통해 미래에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내가 속한 기업의 경영을 돕는 인재, 또는 나만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되고 싶어 한국항공대학교의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전형으로 항공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래인재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들을 크게 보자면 첫 번째로는 내신, 두 번째로는 비교과 활동, 세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상 면접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해야했습니다. 첫 번째 내신을 위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원하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그리고 확률과 통계와 같은 교과들을 선택하였습니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는 어떠한 지역이 무엇으로 인해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배움과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공부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더욱 넓혔습니다. 경제 시간에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들을 쌓았으며, 확률과 통계 시간에는 경영학에서 중요한

빅 데이터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선택 과목들을 공부하며 전공과 연관이 있는 기본적인 지식 또한 쌓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고등학교 3년간 성적 진보상을 받아왔으며, 꾸준한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비교과 활동들을 나누어보았을 때 독서 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교내 프로그램, 교내 대회,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독서 활동을 할 때 경영, 경제, 주식 등 여러 가지의 책들을 읽으며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었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는 최대한 다양한 동아리들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학년 동아리로는 댄스동아리에 참여하여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학년 때 동아리는 도서관 활동 동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동아리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생각보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음을 깨닫고, 도서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위해 도서관에서 배운 심진분류법과 도서관 용어를 활용하여 책 정리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동아리원들과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공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학년 동아리는 기획마케팅 동아리에 참여하여 진로와 관련된 특정 기업의 마케팅 방안과 신사업을 제안해보는 기획서를 작성해보고, 해당 기업의 전략, 실적, 주타겟 층에 대한 분석 활동을 통해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반 도서를 점자책으로 바꾸는 입력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생활기록부만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타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으로는 창의융합캠프 활동, 금융 강의, 영어 프로그램, 진로전공심화 프로그램 등의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의융합캠프 활동으로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일회용 쓰레기들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환경 문제를 주제로 시제품을 제작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며 소비자들이 쓰레기 처리에 곤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편리성, 강제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모의투자 활동과 주식시작 변동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으로는, 오직 영어로만 대화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와 접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진로전공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시대에서의 기업경영 및 위드코로나 시대의 기업경영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 또한 진행하며 전공과 관련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대회로는, 학교 경제 수업 시간 때 흥미를 갖고 배웠던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인플레이션이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경제탐구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전형을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표현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꽤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계속해서 하였으며, 스스로도 자기소개서 예시들을 찾아보았으며 만족스러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상 면접 준비로는, 영상을 찍을 때 발음이 뭉쳐지지 않기 위한 스피킹 연습과 더불어 실제로 스스로 말하는 영상을 찍어서 다시 확인해보며 잘못된 점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완벽한 영상 면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한국항공대학교의 경영학부에 뽑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뽑는 입장이 아니라 뽑히는 입장에서 정확한 합격요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격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전공 적합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교과 선택 과목, 그리고 전공과 관련 있는 비교과 활동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





습니다. 독서 활동을 할 땐 전공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교내 활동들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들을 하여 내가 이만큼 이 전공에 있어 흥미를 느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확률과 통계와 같이 전공과 관련 있는 교과들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기록들을 보고 제가 원하는 공부가 경영학이란 전공과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이후 미래 예비 항공대 학생분들 즉, 저의 후배가 될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로 한국항공대에 지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대학 생활을 한지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대학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순 없습니다. 물론 식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한국항공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 학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대학교인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적으로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의 학력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학력들을 떠나서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 보여주는 노력들이 느껴지도록 강의를 진행해주십니다.

다음으로 항공대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건물들 간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다음 강의실로 이동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항공대 캠퍼스에 대해 만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입학 전형을 위한 준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여러분, 수시로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전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대학 입학에 있어 큰 걱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 내신 성적을 올리며 성적 진보상을 받아왔고 이러한 저만의 스토리가 대학교에 있어 큰 점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내 프로그램들, 교내 대회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본인이 끊임 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생활기록부에 남겨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는 다른 '다양함', 그리고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들이 하는 똑같은 것만 하려고 고집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하게 활동했으면 합니다. 학생부 종합이 챙겨야 하는 게 많아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역량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음악 공부도 해보고, 춤도 배워보며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본인이 진짜로 그 일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도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현대인 여러분 나중에 캠퍼스에서 꼭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항공대 1개월 다니며 느낀점

대학 생활을 시작한지 1개월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대학 생활을 한지 1개월이 지났다는 게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직 1개월 밖에 대학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 달 동안 저는 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1개월 동안의 대학 생활을 하며 느낀 것들 중 첫 번째로, 고등학교 수업들과는 달리 대학에서의 수업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들로 구성된 수업들이어서 그런지 수업에 더 빠져들고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생활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여 새로운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서 더욱 성숙해지고,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책임



감을 갖고 나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나가며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보다 더욱 어려워진 수업과 공부내용,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들, 그리고 과제들로 인해 현재 적응하는 데에 있어 살짝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에 있어서는 강의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집중하여 수업을 듣고, 꾸준히 복습하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께 질문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대학 생활에 적응되지 않아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항공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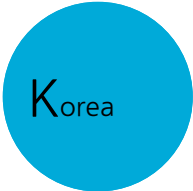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가 확실히 잡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학에 입학해서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전형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김○선  
(진명여자고등학교)



###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국항공대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풋풋한 새내기 23학번 김○선입니다. 우선 저는 작년 수시 논술전형으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보이는 기계마다 저건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될까? 무엇으로 구성되어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항상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 기사로 다르파(DARPA)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거기 출전한 로봇들이 사람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진 못했지만, 저는 사람의 형태와 유사하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에 매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 진로를 로봇 엔지니어 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형태의 로봇을 개발할 것인지, 무엇을 하는 로봇을 개발할 것인지,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러게...?”라는 확답을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가족과 영화 ‘마션’을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화성에 혼자 남겨져 고전을 하고 있었으나, 다양한 기계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저는 이때 쓰인 기계들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행성에서 걸어 다니거나 현재 사람이 우주에 가서 하는 위험한 작업을 대신 해주는 로봇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거구나!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거였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 대학교 수시를 넣을 때도 기계공학과와 이곳 항공대학교의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지원했습니다.

###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일단 학교 내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 6장의 카드 모두 논술로 지원하여 따로 논술학원에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재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작년도 마찬가지로 6개의 논술을 지원했다가 모두 불합격이라는 가슴 아픈 글씨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시작할 때 정시공부는 물론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현역 당시에도 논술학원에 다녔었는데 그날 그날 복습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음번 수업할 때까지 복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일단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여 재수 당시 논술학원에 다닐 때는 그날 그날 오자마자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를 다시 혼자 생각하면서 풀어보고, 풀어주시지 않았던 문제들도 풀어보고 답지를 확인하고 이해가 안 가거나 수업내용 중 궁금한 내용을 다음 수업 전에 꼭 정리해가서 질문하곤 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질문을 매번 하고 가는 편이었기에, 수업 끝나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께서 오늘은 질문이 없냐고 오셔서 여쭙보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갔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주에 나간 수업내용(수학적 개념, 논술 기출문제 등)을 무조건 2번은 복습하고 다음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원한 학교의 절반 정도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논술을 잘 봐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게 된다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능 공부: 논술 공부의 비율을 8:2 정도로 조절해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 것인지를 또 고려하여 그 과목에 더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쪽을 잘 못 해서 모의고사를 보면 국·영·수로 대학별 최저를 맞추곤 했기에 국·영·수를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저는 아직도 수학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항상 수학 강의를 듣고 나면 백지에다가 오늘 인강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수학 개념이 뭐가 있었는지 쓰고 그 수학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쓰이는지, 왜 쓰여야만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등을 정신없이 써 내려가곤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있다가 그 전주에 본 강의를 또 보고 또 백지에 수업내용을 써 내려가고, 다시 기억 안 나면 강의를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확 떠올리고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강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고 강도를 엄청 하셨기에 그냥 꼭 참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집들을 3번씩 풀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니다. 모의고사를 풀면 확실히 성적이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내가 왜 이 개념을 이 문제에 써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끊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스스로 생각해서 풀 건지, 아니면 그냥 풀이 과정을 외워서 풀게 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강의에서 설명한 수학 개념의 정리, 증명 등을 혼자서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설명해나가며 마음을 안정시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막바지로 다가왔을 때는 정말 불안감이 항상 엄습해왔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한눈에 모르겠으면 보자마자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문제를 몰라서 넘어갈수록 더욱 초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넘어가는 문제들을 만약에 조금

만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넘어갔을 문제들이 나오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기 시작해서 풀어낼 때까지의 시간을 재보았습니다. 그 방법을 쓰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서 바로 넘겨버린 문제들이 알고 보니 1~2분만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들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저의 고되고 외로웠던 수학 공부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인문계열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공계열은 '수리'논술이기에 우선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논술학원에서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학교에서 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내포돼 있지 않은 개념과 개념별 서술 방식, 학교별 논술의 특징 등을 따로 배웠던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문제 한 문제씩 정확하게 이게 맞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대충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 보다 다 풀진 못했더라도 정확히 푸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공대 논술을 보면서 전체 문제 중 전체 8문제의 소문항 중 1문제를 아예 풀지 못했지만, 나머지 문제를 확실하게 맞히자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고 나오니 논술 최초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 예비 향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항공대에 들어오시게 되면 학교 안에 실제 운항이 되던 비행기도 있고, 또한 '항공'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와 관련된 동아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모형항공기 제작동아리 MAC, 로켓동아리 SRS, 항공기 제작연구회 amsr 등)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열리는 AIRBUS 101 공모전에 참가하여 3등까지 AIRBUS 본사 탐방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항공대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수업들도 있습니다. '열기구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열기구를 체험하는 수업입니다. 열기구의 원리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타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모의비행 입문'입니다. 모의비행 입문 같은 경우는 실제 비행기 조종간처럼 생긴 장치들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러글라이딩' 수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패러글라이딩이 버킷리스트인 저한테는 매우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의 크기입니다. 실제로 학교에 와보시면 학교의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강의가 연속으로 있거나, 사물함에 갔다 와야 하거나 등등 건물과 건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을 겁니다. 이때 학교가 작기 때문에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크기도 작지만, 학생 수 또한 다른 학교에 비해 적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대는 선후배 간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묘미는 혼자 알아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두렵고 혼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그렇기에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하게 된다면 코로나도 풀렸으니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항공대에는 새내기들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오니 멘토 선배분께 모르는 것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고, 새내기성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학금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는 더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었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가 확실히 잡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학에 입학해서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논술 최저를 국·영·수 이 세 과목으로 보통 맞췄다고 언급했었는데, 저는 국어 같은 경우 꼭 기출을 아침마다 1개씩은 풀었고, 틀린 문제 밑에 왜 오답을 골랐는지, 왜 정답이 정답인지 하나씩 다 따졌고, 국어도 수학처럼 여러 기출이 들어있는 문제집을 3회 독씩 하였고, 2

회 독부터는 맞은 문제도 왜 저게 정답인지 생각해서 메모해놓고 해설지와 비교해가며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전시가/소설 같은 경우는 고전 단어를 암기하였고, 수능 특강은 일부러 수능이 2달에서 1달 반 정도 남았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출을 풀고 또 풀었기 때문에 수특 작품을 수능이 다가왔을 때 봐도 별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능 때도 기출을 풀면서 기른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따로 인강을 보지 않았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를 하루에 3~4문제씩만 풀었습니다. 다만 그냥 풀지 않았고, 이 또한 국어와 비슷하게 왜 그 선택지를 답으로 생각했는지, 앞에 나온 접속사, 부정어 등등 힌트들이 있었는지, 내용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나만의 해설지를 만들어서 수특/수완의 해설지와 비교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항공대인들의 앞길을 응원하며, 힘들고 외로웠던 자신과의 싸움을 뒤로하고 항공대에서 마음껏 여러분의 잠재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심화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어 분리하여 공부해야 한다. 나를 수험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2023학년도 수시전형

경영학부 이○인  
(한영고등학교)



2022년 2월 21일,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내 입시는 실패로 끝났다. 나는 바로 재수학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합격도 하지 못한 나는 나 자신에게 큰 실망감에 빠졌고 내가 수험생 생활을 1년 더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나에게 딱 한번만 더 해보자는 용기를 주셨고, 그렇게 주신 용기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만 했다. 하지만 수시 6장, 정시 3장을 모두 불합격한 나는 분명 달라져야 했기에 재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역 때는 하지 않았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내가 대학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한 대답을 경영학과였다.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경영학과를 지망했다. 단순히 경영학부가 문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이고, 취업이 잘되어 보여서가 아니었다. 나의 꿈은 직접 창업을 하여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절한 학과는 경영학과였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꿈을 바꾸게 되었을 때도 가장 큰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던 학과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한 답은 비행기였다. 한 때 나는 파일럿을 꿈꾸었을 만큼 비행기를 매우 좋아했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비행기를 구경하러 인천공항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이처럼 비행기 마니아였던 나는 비행기, 비행기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배우보고 싶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비행기 또는 비행기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배움을 제공하는 대학교는 매우 한정적일뿐더러 필연적으로 과를 특정과로 진학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필요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학교가 있나 찾아보던 중, 대학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한국항공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나의 모순적인 필요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학교를 그제야 찾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재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를 목표로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남들에 비해 월등한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내신 성적 또한 경영학과에 들어가기에는 낮은 성적이었기에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면 나에게 남겨진 선택권은 두 가지 밖에 없었다. 바로 논술 전형과 정시 모집. 어떻게 보면 가장 동떨어져 보이는 두 전형이 나에게겐 행운과 같이 느껴졌다.

2023년 입시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에 논술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2합 5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는데 이러한 최저 조건들은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맞춰질 수 있는 성적이었었고, 혹여나 논술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능 준비가 열심히 되어있다면 정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은 행운들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기에 논술 공부 방법과 수능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을 주자면 “절대 기출을 의심하지 말 것”이다. 한국항공대학교에 논술 전형에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다시피 항공대의 논술 문제는 일반적인 대학들과 매우 차별점을 두고 있다. 특히 논술 1번 문제에서 문학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문제는 다른 대학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며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논술 고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1번 문제만 풀다가 시간을 모두 다 쓰고 나올 것이다. 나는 이 항공대의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했던 기출이 중요하다. 항공대학교에서는 논술 기출 문제를 수험생들에게 친절히 제공하고 있다. 이 기출문제를 먼저 접해봐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대학교는 자세한 배점 방법 및 답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매우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다른 문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혼자 이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힘들다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EBS에서는 항공대학교 논술 기출 문제 분석 및 답변 작성 요령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강의를 보면서 혼자 공부하면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답변 작성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혼자 하기에는 막막했던 부분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강의를 보는 것을 차선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하는 힘 때문이다. 우리가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보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합격하는 것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를 보더라도 단순히 강의만 보며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답안지에 작성할지 고민해보고 직접 작성해보며 자신만의 스킬을 만들어 고사장에서 이를 실현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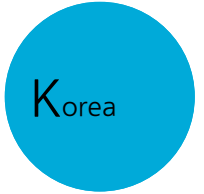
나 같은 경우는 예시 답안을 못해도 10번 씩 옮겨

적어보며 답안지의 형식을 나의 머리 안에 집어넣었고, 평가 기준을 정독하면서 항공대학교가 답안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노트에 정리하였다. 또 이를 그대로 고사장에 들고 가 시험을 보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보았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항공대학교의 채점 기준은 매우 명료하고 원하는 것이 정확하다. 항공대 홈페이지에서 기출 문제를 뽑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행한 학생이라면 아무런 사고육 없이 이를 해결해낼 수 있기에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기를 추천한다.

다음으로는 수능 과목별 수능 공부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어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연계 교재를 외우다시피 자주 보며 작품의 제목만 봐도 관련한 내용들이 떠오를 정도의 경지까지 공부를 하였다. 또 단순히 작품 하나하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배경들을 공부하였고 이와 관련된 작품들 또한 함께 공부하였다. 또 여태까지 나왔던 문학 작품들을 내 손으로 하나하나 분석해보며 평가원이 문학 문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비문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나의 성격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단 단위의 문제 풀이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방식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각 문단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읽지 않고 넘어갔다. 처음에는 지문을 다 읽지 않는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것 또한 명확하지 않는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공부한다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화법과 작문과 독서는 정말 기출이 전부이다. 놀랍게도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의 구조는 매우 유사하며 답이 형성되는 위치 또한 유사할 때가 많다.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기출을 의심하지 말고 기출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이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수학 수학은 개념+기출이 수학을 고득점으로 이끌어 낸다고 생각한다. 일단 명확한 개념이 머리에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응용을 할 수 없을뿐더러



쉬운 문제 또한 틀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난이도 최상 문제를 풀고 난이도 중상~상 문제를 높이는 측면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개념 정리를 할 때는 절대로 모든 것을 필기하고 다 외우려 하지 말고 버릴 수 있거나 중요도가 크게 떨어지는 개념들은 확실히 버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수학은 기출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한정되어 있고, 잘 바뀌지도 않을뿐더러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제한된다. 수학문제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고 말과 표현방식만 바뀌어 새로운 유형인 것처럼 제시한다. 하지만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를 느끼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기에 기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3. 영어 영어는 내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영어는 기출+멀티태스킹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기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과목들에서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다시피 문제의 형식 자체가 크게 바뀌지도 않고 바뀌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문의 소재 또한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출에 대한 학습이 잘되어 있다면 시험 당일에 아는 문제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수능 영어 시험에 있어서 멀티태스킹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 수 있다시피 듣기 시간 때문이다. 만약 듣기 시간을 온전히 듣기만 하는데 모두 사용한다면 원어민이 아닌 이상 다른 문제를 시간 내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수능을 공부하는 동안은 멀티태스킹 능력을 길러 듣기를 하는 동안 적어도 8문제는 해결해낼 수 있어야 다른 문제를 여유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듣기 시간동안 12문제를 풀어냈는데 검토하고 OMR 마킹을 하고 나니 시간이 거의 끝나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처럼 영어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내기 위해서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4. 사회탐구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불행을 동시에 주는 과목일거라고 생각한다. 한 문제의 정

답 유무가 등급을 가르고 대학을 가른다. 하지만 만약 사회탐구가 당신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면 나처럼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첫 번째로 다독이다. 현역으로 수능에 임할 때는 한번 볼 때 심화개념까지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회탐구의 개념을 대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개념을 보는 횟수는 줄어들고 심화개념까지 머리에 잘 남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수를 할 때에는 다독이를 통해 개념을 더 자주 머리에 상기시키고 심화개념을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분리하여 공부함으로써 효율성 또한 추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심화 개념 분리 공부다. 알다시피 소위 킬러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있다. 만약 킬러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된다면 지식의 장은 더 넓어질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금인 수험생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매우 비생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심화개념을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어 분리하여 공부해야 한다. 나를 수험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공부를 해야만 해서 지하에 있는 독서실에 갇혀 있던 것이, 대학에 합격해서 밖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과 대비되어 너무 힘들었고 절대로 1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 이에 대해 대답과 위로를 하자면 '시간이 모두 해결해준다'이다. 나에게도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수험생활도 끝나게 되었고 지하 속에 박혀서 꽃놀이 하는 것을 지켜보아만 했던 내가 어느새 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그 때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내라고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활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단 한국항공대학교는 나처럼 비행기나 우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학교라고 볼 수 있다. 항공에 특성화된 교육 과정도 많을뿐더러 이와 관련하여 권위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서 항공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받는다. 또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선진화되어 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교들을 돌아다녀봤는데 여태까지 항공대보다 더 깨끗하고 선진화되어 있는 시설들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수님과 아웃풋이 매우 좋기로 유명하다.



원래 입시 커뮤니티에서 보면 특정 대학교에 대하여 학교에 대한 학문적 성과나 아웃풋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입시 커뮤니티에서 항공 대학교는 좋은 교수님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고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대학교의 주변 인프라는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입시 커뮤니티에서 보면 단순히 학교의 위치만 보고 주변에 발 밖에 없는 학교라는 식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학교의 인프라는 좋은 편에 속한다. 학교 안에 카페도 가지고 있으며 형식당에서는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한다. 학식이 먹고 싶지 않을 때에는 화전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다양한 음식들 또한 먹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대의 위치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학생들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아무런 방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준다.

또 도심에 붙어있는 대학교라면 할 수 없는 열기구 체험, 패러글라이딩 등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매우 많다. 심지어 학교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15분이면 홍대에 갈 수 있는데 홍대에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매우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하다. 또 타 학교와의 교류 또한 매우 활발해서 다른 학교의 구성원들과 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점 교류를 통해 다른 학교의 수업 또한 들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 또한 매우 다양하며 항공에 특화되어있는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대회를 모두 참가할 수 있는 학교는 항공대학교가 유일무이하다. 또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율도 높는데, 항공대학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누구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인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지금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는 항공대학교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항공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라퓨타, 활공회 등등 특이한 동아리들도 많으며 항공대학교의 자부심과 같이 멋있는 활주로 밴드 또한 아직도 운영 중이다. 또 선배들이 기본적으로 후배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주시며 길라잡이가 되어주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우리 학교, 한국항공대학교를 사랑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대부분의 학생은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면 기사를 찾아보거나 주제 관련 독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현직자를 직접 인터뷰 하여 실제 경험담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항공 업계의 위기가 심각했을 때, 화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전형

경영학부 김○린  
(학익여자고등학교)



###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래들이 많이 가는 놀이터, 키즈카페보다 공항을 더 좋아했습니다. 공항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게임보다 익숙했고 자연스럽게 항공사, 공항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어렸을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의대로, 교사가 되고 싶으면 교대로' 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항공'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항공대학교를 1지망으로 목표로 삼고 공부했습니다. '운항' 과 '관제', '정비', '객실'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것은 '경영' 분야였습니다. '경영학 콘서트' 를 읽은 뒤, 본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마케팅으로 기업이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본 후, 경영학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 협정, 항공사 간 제휴를 통해 새로운 취항지를 개척하거나 지역 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항공 여객 전문가가 되고 싶어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학급 임원은 물론이고 과목 부장은 꼭 1과목 이상 씩 맡았습니다. 과목마다 하는 대회나 행사는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활동 하나 할 때마다 각 담당 선생님들께 찾아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으며,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등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하나하나 다 작성하여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또, 각 과목 당 1년에 3권 이상 책을 꼬박꼬박 읽었고 독후감도 매번 제출했습니다. 중간고

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수업 시간을 빌려 반 친구들 앞에서 마케팅, 회계, 경영 정보 등 경영학의 기초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문제도 한 번 더 물어보고 발표도 정말 열심히 하며 선생님들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친해져서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도 내신은 중요합니다. 내신 기간에는 비교과 활동을 멈추고 내신에 집중했습니다. 영어, 수학은 평소에 틈틈이 공부하고 국어, 탐구 과목은 시험 4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 정리가 안 맞았기 때문에 소리내어 저 자신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주로 도서실 및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은 아파트 1층 벤치에 앉아 공부하기도 했고 스터디 카페에 가기도 했습니다. 공부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휴대폰은 하교 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넣고 자정까지는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대표님을 만나 인터뷰했을 때, 경영 기본 이론을 숙지해야 실무에서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경영 이론을 선행학습하고자 'STP 전략'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직접 찾아 들었습니다.STP의 정의, 필요한 이유를 학습하여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론만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실제 관심 있는 기업에 적용하여 학습하니 SWOT 분석, 4P 믹스전략 같은 이론에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STP 전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관찰하며 여러 마케팅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팅 전략 도구에 대해 숙지하니 수업 시간에 기업 분석을 할 때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마케팅 분야를 공부하니 대학에 와서 '경영학 입문' 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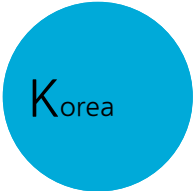
대부분의 학생은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면 기사를 찾아보거나 주제 관련 독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현직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실제 경험담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항공 업계의 위기가 심각했을 때, 화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뉴스로 접한 후, 화물 마케팅 및 화물 기획에 관심이 생겨 국내 FSC 항공사 화물 마케팅, 영업부에 재직 중이신 분을 직접 찾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로 관련 깨달음을 얻고자 화물 노선 선정 과정부터 화물 운송 업무까지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힘들게 준비하여 취향한 화물 노선에서 많은 이익을 얻은 경험부터 예상치 못한 비용 분석 착오로 큰 손실을 겪을 뻔했던 경험 등 아이김없이 실무자의 경험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관심있는 주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합격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예비 현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항공 특성화 대학이라 항공에 관심있는 친구들(항덕)이 정말 많습니다. IATA 공항 코드 아는 건 물론이고 비행기 사진만 보면 바로 기종을 맞춥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교수님들도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 쪽에 재직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현직 시절 이야기도 자주 해주시는데 하나하나 다 재미있고 진로 자극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 경영으로 생기부를 채우기도 했지만, 일반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플랜 B가 필요했기 때문에 6:4 비율 정도로 잘 분배해서 활동했습니다. 항공 경영 관련 활동으로는 항공사 일반직 인터뷰, 항공사 csr 활동에 대해 조사했고 빅맥 지수 탐구, 사회적 경제 앱 개발, 스포츠 마케팅, 브렉시트 조사, 클라우드 펀딩 참여 등 일반 경영에 대해서도 많이 탐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자랑하고 싶은 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2022년도에도 똑같은 전형, 똑같은 과로 한국항공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다 '수린이가 아니면 항공대 누가 붙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기록부도 완벽하고 성적도 준수했다고 생각했어서 당연히 붙을 거라고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우주캠프 주말 캠프, 고등부 심화 과정 등 항공대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는 참여했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최초합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상상도 못한 불합격과 예비 번호를 받았고 결국 마지막 날까지 합격 순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몇 년 동안 원했던 학교를 입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결국, 다른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다니는 내내 항공대에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지도 교수님과 동기들이 많은 반대를 했지만, 사람은 역시 하고 싶은걸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한번 더 도전했습니다. 밤낮으로 대본을 외우며 수백 번을 찍고 또 찍었던 영상 면접을 통해 올해는 꼭 붙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그토록 바라왔던 합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번 항공대 합격 소식은 비행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항공'을 배울 수 있는 항공대 합격증을 받는 것만큼 낭만적인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 간절했던 초심 잊지 않고 열심히 배워 선배들처럼 학교를 빛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저는 막연하게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때 항공전자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뉘는지 알게되었고 항공전자 담당 항공정비사의 하는 일 등을 배우면서 항공 전자라는 분야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전형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이○진  
(경북항공고등학교)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3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에 합격한 23학번 이○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공종사자 직업 중 하나인 항공정비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한국항공대학교 입학 을 목표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내신과 비교 과 활동을 중심으로 준비했으며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체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항공전자정보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비교과 활동 중에서 공군 기본군사훈련 단에서 2주간 항공전자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꿈을 구체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때 항공전자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뉘는지 알게되었고 항공전자 담당 항공정비사의 하는 일 등을 배우면서 항공 전자라는 분야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 전자에 전문성을 가지는 항공정비사가 되고자 항공전자정보공학부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현재 항공기의 많은 부분이 전자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시로 보잉사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B787 비행기는 과거의 다른 비행기와 다르게 많은 부분을 전자화에 성공했습니다. "Bleed-less"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엔진에서 공급받던 고압 공기를 Generator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기계적인 파트를 전자화해 복잡했던 계통을 단순화하여서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기체/기관을 잘 다루고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항공정비사를 요구했다면 현재는 항공전자와 전기를 다룰 줄 아는 항공정비사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하여 저는 항공전자정보공학부에 진학하여 5가지 트랙 중, 항공전자 및 제어시스템과 통신시스템 및 멀티미디어를 전공하여 항공전자와 위성통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와 현장에서 항공정비사로서 근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미래인재전형을 통해 제가 알아보고 조사해본 항공 현장의 변화와 미래 기술의 동향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 경험을 제 자소서에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학업 수준 또한 평균 이상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이과 과목뿐만 아니라 문과 과목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미래인재전형은 첫 단계가 내신으로 평가하는 일정 부분 있기에 최근 3개년 내신 등급과 제 내신을 비교하면서 성적 수준을 1학년부터 2학년 순서로 내신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준비해나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형에서는 1차에서 받은 점수와 면접 영상을 가지고 최종 평가하기에 면접 준비도 유튜브나 가족 또는 지인을 상대로 연습해보면서 면접 준비를 해나갔고, 특히나 23학년도 면접은 영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었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어떻게 함축적이고 깔끔하게 줄여내는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영상 총길이가 긴 편은 아니기에 각 항목 별로 제 의견과 생각 한 두 가지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누구나 들어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상을 준비했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면접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 면접을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말해보면서 대면이던 비대면이던 간에 본인 스스로 소개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갈 줄 아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필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꼭 준비해서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과목 내신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한국항공대학교에 합격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나와 맞는 적성을 찾았고 그 적성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과가 이곳이라는 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고 나아가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이곳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를 선택했다는 의미를 주제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었습니다.

또 대학교 입장에서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배웠던 공부를 토대로 취업하기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잘 따라오고 잘 해낼 수 있는 학생을 뽑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찾아보고 해봤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도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항공정비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항공기술교육원에 입과 하여 오전에는 고등학교 수업을, 오후에는 항공정비사 면허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약 2,41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항공정비사 면허 필기시험에 단 한 번에 합격했고 성인이 되자 말자 항공정비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최연소로 20살 때 항공정비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공부도 하면서 항공정비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 하나 정확하게 돼가는 건지 저 스스로 의심하고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꿈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니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었고 항공정비사가 되어서 비행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견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는 그 순간이 그저 좋았던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이 지금 한국항공대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새내기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대학에 올라와서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수준의 학문과 많은 시험과 과제를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공부로 해결하시고 모르겠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입학하실 예비 24학번 후배님! 이곳 한국항공대학교는 대한민국 항공우주를 이끌어가는 대학교입니다. 과거에는 항공우주의 첫 시작을 함께했고 현재는 미래를 제시하는 대학교로서 항공우주 관련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싶다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이곳 한국항공대학교가 최고일 것입니다. 다만 항공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만이 아닌 일반 공과대학처럼 원한다면 본인이 선택한 트랙을 이용해 반도체나 일반 전자 및 통신 계열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항공전자정보공학부에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UAM과 같이 신사업 또한 도전해 볼 수 있으며 본인이 가고자 한다면 길은 열려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신설로 인해서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큰 변수가 아니고서야 항공우주 업계는 결국 살아나서 과거의 위상과 경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발맞춰서 이곳 한국항공대학교는 변화를 준비하고 그 순간에 리더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내년에 이 곳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은 취미라면 같은 동아리에서 재미있게 활동하고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의 공부가 괴롭고 힘들겠지만 1년 후를 기대하며 꼭 잘 이겨내시고 내년 새내기 배움터에서 봤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점차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다양한 시점에서 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분야가 넓어진 비교과 활동과 이를 기록한 생활기록부가 저만의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2023학년도 수시전형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김○정  
(풍암고등학교)

저는 이번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진학하게 된 항공기 23학번 김○정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공대에는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 전자 정보 공학부, 신소재공학과, 공학계열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 중에서 제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여러 이유 중 가장 매력적인 점은 학과가 아닌 학부라는 점입니다. 입학 후 한가지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과와는 달리 항공기는 항공우주공학전공과 기계공학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부입니다. 한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타대학, 타과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 더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해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대에서는 항전정도 학부로 운영이 되는데 저는 우주의 정보를 지구에 알려주는 인공위성과 그 인공위성을 우주공간과 지구사이에서 운반해주는 로켓에 관심이 많아 항공기 입학 후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을 때 관심사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학생부종합이라고 하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항공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꾸준하게 한 노력은 한국항공대학교는 이름에 항공이 들어가는 만큼 항공(우주)분야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을 인공위성, 로켓, 항공기 등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해보는 것에 집중한 것 입니다. 수학1,2 시간에 배운 공식을 직접 항공기의 안정성 계산에 적용보기도 하고,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시간에 학습한 수학 지식들을 이용하여 차이콥스키 로켓방정식을 유도해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는 등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단순 학습에서 멈추지 않고 관심분야에 확장해 적용하며 관련 전공지식들을 쌓았습니다. 이 외에도 인공위성의 고도와 연관 있는 케플러 법칙 유도, 항공기 소음 계산방식, 항공기 비행경로 결정 등 다양하게 심화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과 비교하여 스스로 어떤 부분이 적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느 것인가 체크하며 관련 비교과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창의적 인재 + 실용적 인재 + 지도적 인재가 항공대의 인재상인 것을 확인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교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다른 조건에서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점으로 다양한 접근을 해 나가며 점차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능숙 해졌습니다. 지도적 인재를 위해서는 동아리 부장, 프로젝트 팀장, 팀플 팀장 등 크고 작은 활동에서 리더를 많이 하면서 점차 리더십을 키워 나갔습니다. 단순하게 수업시간에 주어진 활동에서만 팀장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장기 프로젝트 동아리와 융합과학 동아리를 신설하고 부장의 역할을 2년간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팀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 동아리 구성원 모집, 공동체의 목표 선정, 예산 결정, 팀 구성, 프로젝트 지원 등을 해나가며 더 능동적으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얻어 나갔습니다. 5대 핵심역량인 전문탐구 역량을 충족 시키기 위해 교내에서 진행하는 여러 중장기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한가지 분야에 대해





서 깊게 탐구하는 자세와 방식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창의도전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도전하고 기회가 되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미래인재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관되게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들을 하나씩 시도해 나간 것 입니다. 저는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합격에 제 성적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3년 동안 열심히 채워 나갔던 비교과 활동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전공에 대한 관련 지식들을 조금씩 습득해 나갔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간단한 공식과 이론이라도 조금 더 확장하여 생각해보고 한번이라도 관련 이미지나 심화 개념을 접했던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이 성장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처음 본 어려운 이론은 증명을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론이 있구나를 인지하고 넘어가고 그 뒤에 다른 활동을 하다 같은 내용을 접하게 되면 전보다 조금 더 길게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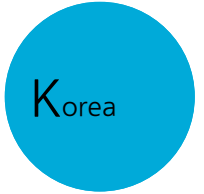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결국 모든 것을 이해 하지는 못해도 제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까지 학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이해 하지 못하던 내용을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해지고, 조금씩 도전해보다 보니 점차 더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에 흥미도 생기고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마음가짐은 더 많은 것을 시도 할 용기의 원천이 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다양한 시점에서 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분야가 넓어진 비교과 활동과 이를 기록한 생활기록부가 저만의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시를 위해 생활기록부에 많은 비교과 활동을 기재 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도 넓은 분야에서 성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만의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 했습니다. 전 암기식 학습 후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한문제라도 깊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할 때 응용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성적도 잘나왔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공부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는 제 입시 경험과 연관 지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 항공대에 입학한 뒤에 경험한 항공대에 대해서 이야기 할까 합니다. 이 글을 접하는 예비 향대인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항공기, 로켓, 드론 등 항공 분야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학교라는 것 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동아리 가입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정말 많은 관련 동아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저희 학교는 종합대학 중에서 학생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학생수에 비해 로켓, 항공기, 무인기 등 항공우주에 관련된 동아리들도 많고 더 나아가 글라이더, 열기구, 행글라이더 등 쉽게 접하지 못하는 특색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이외에도 학관에 가서 동방을 둘러보면 밴드, 태권도, 검도, 축구, 농구, 종교,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비행기와 로켓에 진심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항공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수가 많지 않다는 점은 단점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만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 등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과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항공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본관과 학관 사이에 위치해 있는 대한항공 A300-600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상으로도 A300의 위엄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대형기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낮에 보는 A300도 멋있지만 밤에 조명을 받고 있는 A300은 그 매력이 배가 됩니다. 항공기에 관심이 없던 동기들도 실제로 본 뒤에 감탄을 할 정도인 대형 항공기가 학교 내에 있다는 점도 항공대 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 과학적 지식이 대학교에서 배우



는 기초 과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잘 이해하고 온 동기들이 대학 수업에서 더 잘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건상 물리, 화학,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듣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교수님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학습하고 온 사람들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하는 느낌으로 힘들더라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을 열심히 공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학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입학 전에는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라는 학부명만 듣고는 기계전공을 선택 했을 때와 항공우주 전공을 선택했을 때 배우는 내용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학한 뒤에 다시 교과목 체계를 꼼꼼하게 살펴 보고 나서 기계전공과 항공우주전공은 기본적인 틀을 똑같이 배우지만 고학년에서 세부적인 과목만 조금 다르게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학교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교과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원 원서를 결정 할 때 관심 있는 학과의 교과목 체계를 한번씩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를 졸업해도 항공사나 공항으로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 기계 분야로도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항공사, 공항, 항공우주 기업체로도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미국의 속담 중 “Watched pot never boils.”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든 무언가의 기준치를 넘는 만큼 하지 않으면 성과는 찾아오지 않는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전에 열심히 해왔던지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순간 성과는 찾아오지 않는다

2023학년도 정시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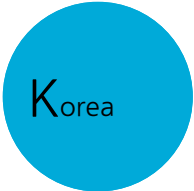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정○민  
(부천고등학교)

이 글은 그저 어느 항공대학교 23학번이 미래의 예비 향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이니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릴적부터 건담이나 어떤 블록들, 레고등을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에 비해 문학작품이나 시, 독서등은 굉장히 싫어했다. 독서시간만 되면 마법천자문이나 why책등 만화책을 가져다 읽었고 잡지를 보게 되어도 잡지 속에 있는 만화만 골라 보았을 정도로 국어를 미친 듯이 싫어하였다. 그래서 중학교때 나는 진로를 무조건 이공계쪽으로 정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여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공계에서도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수많은 전공들이 있었고 나는 그들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며 2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조립들을 수험생활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거진 2년동안 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었다. 이윽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이제는 정말로 진로를 정해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되었고 나는 이전에 생각해두었던 이공계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나에게 맞을 것 같은 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것들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공대 메이저학과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들까지는 골라놓았는데 이들 중 무엇을 골라 어떻게 진학할지는 아직 생각해 둔 바가 없었기에 고심에 빠져있었다.

그때 본 것이 한국의 우주산업의 시작이라는 뉴스기사였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누리호가 발사되는 영상과 함께 한국의 우주산업의 시작이라는 기사들이 나와있었다. 그 기사를 본 순간 나는 잠깐이지만 내가 저런 우주선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다음에 나와있던 기사인 방위산업 기업이 어떤 학교와 제휴를 맺었다는 기사였다. 나는 무심코 그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 기사에서는 방위산업기업과 항공대학교가 제휴를 맺었다는 기사였다. 나의 초중고 11년동안 항공대학교라는 대학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존재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대학교를 본 순간 나의 궁금증이 폭발하게 되었다. 나는 바로 항공대학교의 홈페이지의 학과들을 살살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나의 눈을 사로잡은 학과가 항공우주및기계공학과이다. 나는 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진의 사람들이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본 순간 나의 어릴 적 기계를 조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의 본격적인 시작을 도와줄 대학교를 바로 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로 정하게 되었다.

이제 대학과 학과를 정했으니 남은 것은 그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바로 입학처에 들어가 항공대 항공우주및기계공학과 입시결과들을 전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망했다. 수시로는 나는 항공대는커녕 전문대도 갈까말까한 성격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과감히 수시를 버리고 정시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고3 중순이 지나가는 시간에 수시



에서 정시로 바꾼 사람이 무얼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곧 다시 절망하게 되었다. 이미 학교에는 1학년 부터 정시로 바꾼 학생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꾸준히 공부한 결과 벌써 사설모의고사를 1등급에서 90점 후반대가 나오는 성적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시험지를 보면서 나는 끊임없이 자책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실전모의고사봉투였고 내가 들고있던 것은 기초, 개념서였으니 말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했다.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해가며 7개월 남짓 남은 수험기간동안 무엇을 해야 이 학교에 들어갈 성적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고 그 걱정은 곧 절망감으로 바뀌어 나를 계속 괴롭혔다. 나는 그러한 걱정들을 계속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공부는 안하고 유튜브만 보면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하는 영상들만 보며 나의 자존감을 채워갔다. 그때 나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하여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바로 메가스터디의 손주는 회장이 강사시절을 보낼 때 찍은 동기부여영상이었다. 그 영상은 10분 남짓이었지만 지금까지 나태의 끝을 달리고 있던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는 나에게 다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있었고 나도 내가 공부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생각만을 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주변의 어른들과 그분은 달랐다. 그분은 고3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지등을 10분 남짓한 시간동안 나의 뇌에 때려 박았다. 지금까지 나의 뇌에 이렇게 잘 들어온 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의 잔소리 이후로 처음이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보고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그렇게 해보니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게 되었다. 나는 그저 핑계만 대며 거의 2달이라는 고 3의 중요한 시간을 버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은 5개월동안 집중하여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재수란 없다고, 이 수능이 나의 수험생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다.

정시를 준비하는 나에게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2과목이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국어같은 경우 위

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독서를 극도로 혐오하여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보니 긴 비문학은 고사하고 짧은 시를 보고도 이 작자가 이 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생각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그때부터 나는 문학과 언어와 매체의 경우는 문제를 풀고 모든 선지에 근거를 달았다.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다 상관없이 말이다. 그리고 해설을 보고 해설에 나와있는 근거를 내가 쓴 근거 밑에 다시 썼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문제출제자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가며 공부를 했다. 문학이 쓰여진 당시를 나는 시를 통해 공부하지 않았고 문제 선지를 통해 공부하였다.

이렇게 2달을 공부하니 나의 문제풀이속도가 조금씩 증가하였고 옳은 선지를 고르는 데 자신감이 붙었다. 자신감이 붙으니 문학공부에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문학공부를 밤새는 줄 모르고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어에는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있었으니.. 비문학은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거나와 지문도 길고 그 지문을 통해 내가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비문학은 공부해보니 근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해설이 길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속도를 올리기 전에 글을 읽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을 간단히 도식화하였다. 각 문단을 읽고 그 문단의 중심내용은 무엇이고 그 문단이 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단어들을 이용하여 도식화하였다. 국어는 그렇게 공부하였다.

다음은 수학이었다. 수학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결단 이 빠르게 섰다. 나는 어차피 백점을 맞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킬러문제, 즉 수학영역에서 100점 방지문제들은 풀지도 말고 답도 보지 말라고. 그리고 바로 2점, 3점, 쉬운4점과 준킬러들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목표는 90점대도 아니고 84점이었다. 가장 어려운 4점짜리 4문제를 버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틀린문제는 해설을 보지 않고 포스트잇에 문제를 써놓고 그 포스트잇을 침대 위 천장에 붙여놓고 누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전부 답까지 구해놓고 답과 비교해가며 해설자가 생각한 방법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였다.

영어영역은 우선 듣기평가를 다 맞자라는 각오로 문





제를 풀었다. 그 이후로는 30번 대 문제 중에서 빈칸문제, 순서문제, 삽입문제를 제외한 문제들을 전부 맞추겠다는 각오로 공부했다. 킬러문제들을 제외한 문제들을 맞추자 나는 킬러문제들을 풀지 않고 듣기평가 중 비킬러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공부하였다. 듣기평가가 끝났을 때에 나의 시험지에는 킬러문제와 남은 몇몇문제만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였다. 그 이후로 시간이 남으면 킬러문제들을 1문제에 5분정도 쏘아가면서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1,2문제는 맞추자라는 각오로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렇게 공부한 지 1달이 되자 영어영역 시험을 볼 때에는 듣기평가가 끝나고 나의 시험지를 보면 킬러문제와 정확히 2문제 빼고 모든 문제가 풀려있었다. 정확히 10문제를 남은 50분 남짓한 시간에 푸니 킬러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져 점수도 계속 오르게 되었던 것 같다.

과학탐구같은 경우 나는 개념을 외우는 것이 싫었다. 특히 내가 선택한 과학탐구는 지구과학1, 생명과학1이었다. 특히 과학탐구들 중에서 외울것이 많았다. 지구과학의 경우 어느 하나의 사진에 대한 특징을 외우면 그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 나왔지만 경우는 달랐다. 그래서 나의 머리를 계속 괴롭혔고, 생명과학같은 경우는 유전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여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국어에 있던 문학풀때와 비슷하게 풀었다. 문제를 먼저 어떻게든 풀고 해설지를 이용하여 똑같이 다시 풀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풀고 틀리면 하루 뒤에 다시 풀고 그렇게 공부하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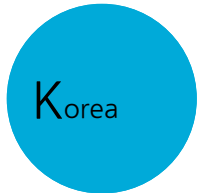
이렇게 공부를 하니 나의 잠잘시간은 점점 줄어 하루에 2시간 자고 학교갔다와서 공부하고 또 2시간 자고...이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다. 그래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 보니 나의 성적은 날마다 올랐고 그 기쁨과 성취감을 잊지 못하여 다시 연필을 잡았던 것 같다. 이윽고 나는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가채점과는 다르게 국어 성적이 상당히 내려가 있었다. 아무래도 밀린 것 같았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항공대학교 입학성적과 비교해보았다. 다행히 항공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항공대에 정시원서를 넣었고 합격하여 한국항공대 23학번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다사다난하였던 수험생활은 막을 내리게 된다.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 고3 세월동안 꾸준히 하였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공부량은 나로 하여금 한국항공대에 합격시켜 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너무 늦게 시작했고 다음 기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인생을 고졸로 살아야 한다. 재수는 없다. 라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부하였고 그 절박함이 나를 항공대에 입학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약간의 운이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고작 몇 달 공부하고 대학교에 온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 때문에 몇 년을 열심히 공부한 누군가가 불합격되었다는 것이니까. 나는 그저 운이 찾아온 때를 잘 노려서 들어온 것 뿐이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운을 바라고 공부하지 않아주었으면 한다. 언제 올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와도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력으로 정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기분도 좋기 때문이다.

이제 예비 현대인들에게 한마디..는 아니고 여러마디 하겠다.

개인적으로 수험생활하면서 정시러로서 지낸 9개월은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그 9개월을 견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여러분이 수험생활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줄 무언가를 찾아라. 예를 들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내가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되어 원하는 점수가 나오고 원하는 기업에 들어간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수험생활은 그 모습을 만드는 길의 첫단추이다. 미국의 속담 중 "Watched pot never boils."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든 무언가의 기준치를 넘는 만큼 하지 않으면 성과는 찾아오지 않는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전에 열심히 해왔던지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순간 성과는 찾아오지 않는다. 너무 각박한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위해 지금 책임감, 성실성을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수능은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성실한가, 책임감있나를 보는 시험이라고 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조차 못한다면 앞으



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회사원은 돈을 벌어야 하고, 주부는 가정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학생에게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싫어도 공부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니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 내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 그리고 꾸준히 해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꾸준히만 해라. 사자성어 '작심삼일'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아니 요즘은 오히려 '작심 세시간'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딱 눈감고 보름만 참아라. 보름만 참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공부를 한다.

공부하는 것을 습관화해라. 그리고 이건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인데 쉬거나 식사하거나 할 때에는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짜투리 시간이 아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다른 활동의 시간에 공부라는 활동을 끼워넣는 것일 뿐. 개인적으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공부를 해본적 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역으로 짜투리 활동이 떠오른다. 다른 활동할 때에는 다른 활동을 최선을 다해 하고, 공부할 때에는 공부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비로소 대학에 합격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자. 수험생일때의 자신과는 확연히 달라져있는 자신을 볼 것이다. 그때의 당신들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구구절절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부디 열심히 하고 후회없이 대학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를 끝으로 긴 글을 마무리한다. 글을 읽은 사람들 모두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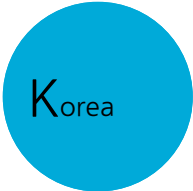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제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꾸준함과 '노력','끈기'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기초와 '이해라는 것이 공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전형

스마트드론공학과 김○원  
(김포제일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올해 항공대에 입학한 스마트드론공학과 23학번 김○원입니다. 제가 항공 쪽 진로를 택하게 된 건 고3 막바지가 다가왔을 때였고, 그때부터 항공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전에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저 학교활동만 열심히 했고, 학생이라는 명분으로 해야 할 공부를 했습니다.

고3이 끝나갈 때였기 때문에 수시로 항공대에 지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3년의 시간에 미리 이 진로를 떠올리지 못한 것이 아깝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저는 꼭 항공 쪽 분야 직업에서 종사하고 싶어 1년을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살면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가 없어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하늘을 나는 생생하고 자유로운 꿈을 꾸었고 그 이후로 나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는 것'을 생각하면 설렘을 느꼈고 항상 밖에서 새를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듣기에 우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제가 스마트드론공학과에 진학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발명도, 드론 발명도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하늘을 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와 드론에 더불어 좀 더 '일상의 일부'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을 발명해내고 싶었고, 지금은 막연한 말뿐이지만 그 막연한 말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저는 이 스마트드론공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저의 진학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전부 놀랄 정도로 저는 수학과 과학을 못하였고 거부감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가 수학과 과학의 성적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었고 항공대에 진학하였습니다. 항공대의 많은 학과는 수학과 과학이 수업의 대부분이고, 제가 항공대에 진학하려 할 때에도 그 점이 저에게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이 높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 그 벽을 넘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문과에서 이과로 진학하려는 예비 항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꼭 저의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꾸준함'과 '노력','끈기'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아침에 6시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꼭 먹고, 커피를 마신 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전날에 작성한 플래너를 펼치고 해야 할 일을 확인한 후, 국어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지문 하나라면 너무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루에 몰아서 몇 지문을 푸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씩 풀어주는 것에 대한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이는 정말 기본적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성적을 크게 올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

제가 항공대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후 저는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시에만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항공대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각할 만큼 중요합니다. 공부를 쉬어야 할 만큼 아픈 날에도 꾸준함을 잃지 않기 위해 저는 “이것만 풀어야지” 하고 풀었고 어느새 이것이 제 하루의 일상이 되자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험생활 중 한 공부 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예비항대인 수험생 여러분이 꼭 실천해줬으면 합니다. 플래너를 쓸 때에 전 과목을 포함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이 힘들다면 5분이라도 보았습니다. 긴 수험생활 중에 하나라도 소홀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학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예비항대인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공대를 목표로 하고 항공대의 입시 결과를 확인했을 때 보자마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과 특성으로 수학과 과학이 중요한 것이 당시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 못했던 저를 잠깐 낙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항공대에 가고 싶었고 평소에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조했지만, 저는 기본개념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기초'와 '이해'라는 것이 공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벌써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지만, 그것에 조금함을 느끼지 않고 저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탄탄히 쌓아갔습니다. 하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학의 성적은 마치 계단 같다고, 노력에 비례하여 성적이  $x=y$  그래프처럼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나는 수학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수학성적의 변화는 느끼기 힘들지만 어느순간 확 오르고, 또 오르지 않는 기간을 거쳐 어느순간 확 오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 굉장히 힘들어 하던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루에 수학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능공부를 시작했을 때 오랫동안 수학의 점수가 50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

에 수학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신 '계단'을 생각했고, 언젠가 꼭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계속 개념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계단처럼 성적이 올랐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적의 그래프는 마치 계단 같지만, 저의 잠재적 능력은 공부에 따라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 일정한 순간까지 그 잠재적 능력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 공부를 처음 하는 경우에 계단의 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계단을 한 칸 오르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한 칸만 넘고 나면, 흥미가 붙고 자신감도 붙어 다음 계단을 더 오르기에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 큰 벽을 마주했고, 그만큼 초조했습니다. 이뤄야 할 것이 크데, 나는 아직 많이 뒤떨어져있다면 불안한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계다가 옆에서 경쟁하고 있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물론 경쟁의 학습효과가 있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예비항대인분들은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길 바랍니다.

제가 공부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고'입니다. 특히 국어도 점점 사고력,추론력을 요하고있고 다른 과목도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국어에서는, 지문을 읽고 지문에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문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여 지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는 이해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기 훨씬 수월해지게 합니다. 또 수학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다가가려면 내가 배운 어떤 공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설계한 후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무작정 문제로 뛰어들어가는 풀이 방법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하기가 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연습할수록 사고하는 능력이 늘어났고 이후로는 전부 문제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이해할 때에도,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뇌에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 다른 분께 와닿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도전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오직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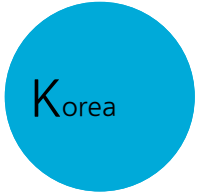
하면서 사고력을 길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시전형으로 항공대에 입학하고 싶은 예비항대인분들에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 어려운 문제라도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력이 높아지고 점점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벽을 극복해 내어 항공대 스마트드론공학과에 입학했지만 3월이 되기 전에 수학과 과학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수학과 과학에 있어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이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니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 다녀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았고, 공부했던 것을 기반으로 수업을 열심히 들으니 괜찮았습니다. 저처럼 걱정을 하시는 분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입학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입학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씩 공부하고 오길 추천드립니다!

1학년인 지금은 전공을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드론공학과에 더불어 다른 학과도 대부분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진로에 대해 아직 명확하지 않으셔도 항공 쪽 진로를 원한다면 꼭 항공대에 들어와 공부해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대의 좋은 점은 교양 수업도 항공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전체적인 공부의 색이 항공 쪽이라서 항공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흥미있습니다. 저도 학생에게 부여된 의무적인 공부를 하다 항공 쪽으로 특화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신기하게 공부가 싫지 않고 흥미롭습니다. 수학을 싫어했던 저도 극복을 이루고 그 분야에 집중하고, 그에 따른 성취감도 큰 것 같습니다.

항공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항대분들이 입시는 힘들 수 있지만 , 항공대에 합격하고 흥미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항공대에 진학해서 항공 쪽 진로로 전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열려있지만, 저처럼 항공을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항공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멋진 비행기를 보며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항공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항공 관련 동아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합격 수기가 이 글을 보시는 예비 항대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 인생은 단 한번뿐이고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삶이 조금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2023학년도 수시전형

항공교통물류학부 이○은  
(인천여자고등학교)

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23학번 이○은입니다.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와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고 있다니 정말 감격스럽고 뿌듯하네요 ㅎㅎ 아마 이 합격 수기를 읽으시는 분들도 한국항공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미흡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을 적어보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잠깐 쉬고싶을 때나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신입생분들과 조금 다르게 타 대학을 3학년까지 다니다가 다시 전쟁같은 입시를 치르고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24살에 또다시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24살이라는 나이가 사회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대학 내에서는 졸업할 앞둔 학생들의 나이로서 1학년의 나이이기에는 무척 많은 나이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3학년까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제 인생에 있어 매우 큰 결심이었습니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대체 왜 이 나이에 1학년으로 신입학할 결심을 했는지, 왜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교통물류학부여야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의 전공은 경제학과였습니다. 항공교통물류와 전혀 연관이 없어보이는 학과였죠? 경제학은 정말 관심 있고 원해서 선택한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꿈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꿈이 넘쳐났지만 중학교에 가보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와닿으면서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지

금 생각해보니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네요. 그렇게 목표가 없는 채로 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적는 희망 직업, 진로 특강, 선생님과 가족들이 끊임없이 묻는 “그래서 꿈이 뭐니?”라는 질문들에 계속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정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결국 대학 진학 전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했고 그냥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제학과에 입학해서 전공 공부를 시작하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구 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수업을 들어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경제학은 나와 안 맞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계속 공부를 했고 3학년이 될 때쯤 다시금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난 무슨 일하게 될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등의 미래 고민이 생겨났고 우울해질 정도로 고민을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이 캄캄하다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운동을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토익 시험을 보고 그 여학성적으로 3학년 여름방학에 단기 어학연수의 기회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한 달의 어학연수가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훨씬 넓어졌고 지금이



라도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꼭 어학연수나 교환 학생 다녀오세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항공교통관제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잠시 스쳐지나갔던 희망직업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일이 관제사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2학기 휴학 신청을 하고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인서울 대학인데 일단 졸업은 하고 생각해보는게 어때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등의 말들을 들었지만 지금의 3-4년을 아껴서 미래의 30년을 후회하기는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생긴 확실한 꿈이었기에 더욱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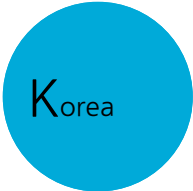
저는 교과우수자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항공대에서 주는 성적우수 장학금의 일환으로 은익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는데, 과연 전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우수자전형은 학생부의 성적이 100%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 관리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기 어렵지만, 공통적인 요소를 위주로 제가 준비했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는 문학 작품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있는 작품들은 물론이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작품들도 고전, 현대를 가리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완벽히 아는 작품을 점점 쌓아나가다 보니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에서 확실한 정답 개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비문학은 문장구조에 집중해서 분석했습니다. 한 문단을 읽을 때마다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지 추론하면서 읽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럴듯한 정답을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습관을 고치면서 정확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같은 문제집 여러번 풀기와 풀이 노트 사용하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문제집을 한번씩 여러권 푸는 것보다 한 권을 여러번 푸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풀어서는 그 문제를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 전혀 풀이를 쓰지 않고 모두 노트에 풀이과정을 써내려가면서 책에는 채점만 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왔

습니다. 이 방법으로 풀이를 검토하고 오답만 다시 풀고 싶을 때는 깨끗한 책으로 복습했습니다. 문제집 한 권에 틀리는 문제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 것 같습니다. 영어는 단어 암기와 문장 구조 분석을 위주로 했습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다음 내용이 무엇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문을 읽는 속도도 중요하므로 글의 전체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문과라서 사회탐구 과목들을 공부했는데, 처음 개념을 잡을 때는 학교 수업과 병행하며 EBS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설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은 연도가 지나도 본래의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의 세세한 변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지문들을 모두 해석하고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틀린 문제는 물론 맞은 문제의 1번부터 5번까지 따져보고 노트에 지문을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능 시험 직전에 노트를 한번 훑어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교과우수자전형은 수능 최저등급 조건이 있어서 수능 공부도 아예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항공교통물류학과는 2과목의 등급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해서 저는 국어와 영어로 최저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대부분 내신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수능 준비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서 최소 2주 전부터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 모의고사를 보고 밥을 먹고 그대로 생활 패턴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능장 입실 시간이 생각보다 이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수능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수능 전용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꽤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능 전용 노트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첫 장에는 자신감 넘치는 문장을 크게 써줍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애들은 다 양배추다, 내가 최고다, 모르는 거 빠고 다 맞는다 등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는 행동 요령을 작성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교실과 화장실을 둘러보고 공간에 익숙해진다. 자리를 잡고 국어부터 차분히 요약 노트를 본다. 시험 시작 전에는 안 마려워도 무조건 화장실에 다녀온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루틴을 적어줍니다. 이 뒤로는 과목마다 문제 푸는 순서를 정



리해서 적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어: 화작-문학-비문학(심리, 철학 지문)-41~45번-비문학(경제, 과학 지문)-별표 문제-검토/영어: 듣기(들으면서 22번까지 풀기)-쪽 풀기-별표 문제-검토 이 순서로 풀었습니다. 순서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고 빠른 순서로 정립하시면 됩니다. 이 노트에 모르는 바로바로 넘어가라, 내가 못 풀면 다 못 풀거다, 지문 보는 순서는 34512, 절대 답 맞춰보지 않기 등 이런 팁들을 적어서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신과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친구들에게 치킨까지 썼습니다 ㅎㅎ 지금까지 제가 전형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힘든 과정들을 거친 것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현재 캠퍼스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항공대 장점을 몇 가지만 자랑해보자면 우선 캠퍼스가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밤에 별도 잘 보이고 교내에서 항대생들끼리 끈끈한 연대를 맺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교 바로 앞에 경의중앙선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지하철 역 3개만 지나면 홍대와 신촌! 버스 10분이면 상암동! 맛집과 놀거리가 가득합니다. 또, 한국항공대의 이름에 걸맞게 항공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있는 학교 커리큘럼과 실무에 정통하신 교수님들이 계셔 항공 쪽으로 비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전공인 항공교통물류학과는 관제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길입니다. 관제사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전문교육기관에 한국항공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며 3학년 때 관제교육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제 실무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관제교육원에 들어가셔서 무난히 전공 공부와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면 관제사 면장과 함께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 관제사분들 중 한국항공대 선배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 입학하시면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여러 가지 장학금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있으니 즐겁게 다니실 것을 장담합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저는 24살의 나이에 다시 1학년이 되었지만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중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 인생은 단 한번뿐이고 직장생활을 적어도 25년은 해야하는데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삶이 조금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원하시는 전공에 합격하셔서 내년엔 꼭 항공대에서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여러 대회나 프로젝트, 발표 등은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본인의 진로와 엮어서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색있는 생기부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전형

### 소프트웨어학과 이○령 (행신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23학번 이○령입니다. 저는 이번 2023학년도 입시에서 한국항공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으로 소프트웨어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과정이 한국항공대학교의 새내기 가 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어봅니다.

#### ◆ 소프트웨어학과를 선택한 이유

저는 어릴 적부터 영상편집과 포토샵을 독학하는 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컴퓨터를 좋아하던 중학생 때의 경험들을 되새기며 컴퓨터공학과 또는 소프트웨어학과에 진학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고, 스스로 컴퓨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점 외에도 IT산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며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하여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 이후 동아리와 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가져 저의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가 아닌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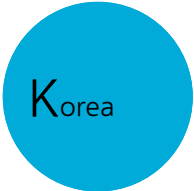
첫째로, 한국항공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 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한국항공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과는 상당한 취업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대학의 취업률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었는데 한국항공대학교의 시용합 대학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학과 취업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우수한 편임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이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교들보다 한국항공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과가 더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학교나 다른 학교들과 달리, 항공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과는 1학년 1학기에 배운 과목을 토대로 1학년 2학기에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고, 또 1학년 때 배운 과목을 토대로 2학년 때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 미래인재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 대회에 참여했으며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발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특히 수학 프로젝트나 프로그래밍 제작 대회와 같이 희망 전공과





관련된 대회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을 준비하며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녹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공부와 병행하며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힘들었던 만큼 배우고 깨달은 게 많아서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리도 전공과 관련된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가서 python, c언어, html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었고 이때 배운 내용을 여러 대회나 프로젝트에 활용하며 전공적합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 생활기록부에는 어느 부분을 보든 컴퓨터 관련 내용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동아리활동으로는 c언어 기초문법 배우기, html로 팀원들과 동아리 소개 웹페이지 제작하기를 진행하였고 진로활동으로는 수학탐구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파이썬으로 지도의 넓이 구하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과 행렬 공부 후 파이썬 numpy 모듈을 사용하여 방정식의 해 구하기, 모바일 학생증 제작하기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소수 관련 독서 후 리만가설과 암호체계의 관련성 조사(독서), 수열 프로그래밍(수학1), 3D 프린팅과 미적분의 유사성 발표(수학2), 암호시스템 RSA의 원리 구현(확률과 통계), 인공지능경망 조사(생명과학1),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 조사(기하)와 같은 활동을 하며 컴퓨터 관련 내용을 최대한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사실 저는 내신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 등급이 낮은 적도 많고, 놀라울 만한 상승 추세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전공적합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와 조사에 참여하였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활동이든 컴퓨터와 관련 지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생각하는 합격요인은 저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에 대한 관심만을 드러냈다면, 저는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습니다. 진로활동으로 과학탐구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여하여 '과일을 이용하여 바이오 에탄올 추출하기'라는 탐구를 진행했습니

다. 또 동아리시간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조사하고,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통계 포스터를 제작하며 저의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긴 하지만, 저는 자기소개서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점을 나타내며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학생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밴드 동아리부터 패러글라이딩 동아리까지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 또 국내 유일 항공 특성화 대학인 만큼 우리 학교만 가진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학생회관 앞에 대한항공의 예전 비행기인 Airbus A300-600이 있어서 내부를 구경할 수도 있고, 날이 좋으면 그 밑에서 동기들과 밥을 먹거나 과제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열기구 동아리와 같은 재밌는 동아리도 있고, 모의비행 입문이라는 교양과목도 있어서 비행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가 작은 만큼 학생들끼리 끈끈하고 함께 어울리기 쉽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학교에서는 '3중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새내기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같은 과의 선배인 멘토 한 명당 8명 정도의 멘티들을 배정하여, 입학 전부터 함께 학교 구경을 하거나 학교에 대한 점들을 소개해주고, 개강 후에는 함께 대학 공부를 하거나 모르는 점들을 알려주는 등 멘토 선배님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멘토 선배님 덕분에 입학 전부터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함께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기회도 가져서 학교에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 덕분에,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활동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나가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내신공부에 방해되는 정도의 활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대회나 프로젝트, 발표 등은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본인의 진로와 엮어서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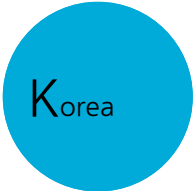
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색있는 생기부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지 한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만으로는 가치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비전이나 가치관이 있는 학생이 더 눈에 띌 것입니다.

따라서 원대한 목표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도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지고, 그 합격 여부가 생활기록부로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1순위는 내신 공부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비법에 대해 말해보자면, 개인적으로 내신 공부는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사용했던 암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험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분명 안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기 쉽기 때문에, 확실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암기할 키워드를 적어두고, 그 키워드를 보며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지구과학1 과목으로 예를 들자면 ‘대륙 이동설의 등장,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주장, 증거, 한계)’와 같이 키워드만 적은 후, 이 키워드를 보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적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녹음해두고 실제 개념 교재의 내용과 비교해보며 내가 어느 부분을 확실히 알고 어느 부분을 잘 모르는지를 확인하였고, 잘 모르는 부분은 확실히 암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자투리시간도 활용하고자 했는데, 밥을 먹으며 쉬운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버스를 기다리며 간단한 문제를 풀며 시간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 자랑하고 싶은 말

제 고등학교 3년을 돌아보면 정말 알차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접수하며 내가 왜 이만큼 노력했을까,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였는데, 막상 대입을 끝내고 보니 그래도 후회 남지 않을 만큼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년 내내 지각과 결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씀 한 단어

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친구들이 놀러다니는 것을 보며 정말 그만하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만 현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새내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매우 힘들고 지칠테지만, 대학생이 된 후 행복할 미래를 상상하며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한국항공대학교의 새내기로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들었던 노래인 옥상달빛의 ‘달리기’의 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 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실 수 있다는 것”



# 2023 KAU 새내기 입학수기

항공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보다 작은 인원과 캠퍼스, 그렇지만 국내 유일 항공 우주 특성화라는 강점, 잠재력을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기대되며 저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23학년도 수시전형

경영학부 조○인  
(압구정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영학부 23학년도 신입생 조○인이라고 합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에 지원하고 합격하기까지의 과정과 시간들, 학교 생활에 관한 소소한 팁과 예비 향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에 재학했습니다. 입학하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고등학교 생활의 반을 온라인으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특히나 제가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학구열과 경쟁이 심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내신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약 2년간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에 힘을 썼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수능과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말’보다는 ‘글’을 쓰고 정리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회를 오로지 글만 작성해 뽑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할 때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보다는 논술 전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논술 학원에 다녔습니다. 논술 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대학교의 논술 스타일과 방향성을 배우고 제가 잘 맞는 대학, 지원해보고 싶은 대학과 입시 전형 등을 찾아보며 준비를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의 여러 가지 학과 중 경영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꼼꼼하고 세심한 제 성격과 연결 지어 어떤 한 기업에 대한 재무와 조직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업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 학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영과 기업 구조에 대해 크고 폭넓은 지식을 공유하는 학과인 만큼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러한 학과에 지원해 대학에 들어가 전공 지식을 더욱 자세히 배우고 알고 싶다는 생각에 경영학과를 고등학교 2학년때 쯤부터 마음에 두었습니다. 본격적인 입시와 수시 원서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논술 학원을 다니며 접해본 학교들 중 제 논술 스타일과 맞는 학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도 준비해 보지 않았지만 주변 선생님과 어른들이 권유한 대학들도 지원하였는데 항공대가 그러한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관심있는 주된 전공은 경영이었지만 항공이라는 특수한 분야와 결합 짓고 미래 산업 시대에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논술 전형에 후회 없이 소신껏 지원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다른 4개의 대학들은 모두 수능이 끝난 후 논술 파이널 특강을 들었지만 항공대만은 유일하게 제가 사교육 없이 홀로 준비하고 합격한 학교였습니다.

수능 전에는 최저를 맞추는데 집중하며 2021, 2022년도 항공대 논술 기출을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수능이 끝나고는 해당 연도 기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고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학이 추구하는 논술 스타일과 방향성은 각기 다르지만 기본적인 핵심 요양은 같았으며 3월부터 준비했던 기본적인 논술 실력을 바탕으로 항공대 논술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21, 2022년도 항공대 논술 기출을 살펴보면 1번은 문학과 예술분야의 작품과 글들이 나와있으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분류하고 묶어서 비교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점인 문제입니다. 2번 문항은 도표와 함께 장문의 글이 출제되며 주제에 관해 설명하고 문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심인 문제입니다. 다른 대학교와 기본적인 논술 틀은 비슷했지만 항공대가 요구하는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 예술 작품과 관련한 주제와 핵심을 빠르게 찾아내기, 자세하고 다양한 해결방안 도출 등 항공대만의 특색 있는 논술 스타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에 적응하기 위해 수능이 끝나고부터는 계속해서 기출을 여러 번 살펴보고 뜯어보며 항공대가 추구하는 논술 방향성에 가까워지려 노력했고 항공대 논술 채점 기준과 방안도 함께 공부하며 시험 당일까지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항공대 논술 채점 기준을 살펴보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2번 문제보다 1번 문제에 대한 점수 비중이 높다고 말해주셨고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 1번 문제를 차분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류하였습니다. 논술 시험지를 받았을 때 제일 당황했던 점은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항공대 논술은 유일하게 원고지 없이 이면지이다 논술을 쓰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글자 수 제한도 있었는데 글을 쓰면서도 내가 얼마큼 글을 썼는지 감이 안 오고 글자 수를 셀 여유와 시간도 없어 매우 난감해하며 논술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1번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쓰느라 2번 문제의 해결 방안을 완벽하게 쓰지 못한 기분이 들었고 학교 밖을 나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본 논술 중에 제일 못 쓴 것 같다고 푸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논술 최초합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등록을 하여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의 고등학교 생활 동안 내신과 수능 준비를 하며 배우고 익혔던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등 사회탐구에서 얻은 지식과 개념들을 글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논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논술도 논술이지만 제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

인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월 이후로 논술 최저를 맞추기 위해 영어와 사탐으로 과목 범위를 좁혀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주말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 때는 국어도 함께 시험을 쳐 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매 모의고사마다 논술 최저를 안정적으로 다 맞췄으며 논술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는 난이도가 무척 높았으며 제가 1년 동안 받았던 사회탐구 성적 중에 제일 낮았습니다. 다행히 꾸준하게 풀었던 국어가 성적이 잘 나와줘 국어, 영어로 2합 5 최저를 맞췄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절대 평가인 영어와,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개념이 쉬운 사회탐구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짜기에 이번 수능에서 많은 학생들이 최저 맞추기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쟁률이 더욱 떨어졌을 것이고 국어, 영어로 최저를 맞춘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최초합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합격 요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파란 송골매가 그려진 한국항공대 합격증을 영광스럽게 받은 이후 항공대에 대한 저의 애정과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약 12년 동안 비슷한 지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지역, 새로운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시작할 대학 생활이 무척이나 설렘이었으며 긴장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준비하며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이 생겼으며, 12월 말쯤 저에게 첫 번째 멘토 언니가 생겼습니다. 경영학부 22학번인 저의 첫 번째 멘토 언니는 과대, 과탐, 과 학생회, 과 동아리, 중앙동아리, 학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학 생활을 한 선배님이었으며 멘토가 교체되기 전까지 멘티들에게 많은 경험담과 조언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1월 한 달 동안 대학 생활을 준비하면서 생긴 질문들을 멘토 언니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으며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과탐을 할 수 있었던 공부 방법, 전과 계기 등등 선배에게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끙끙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선배한테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 훨씬 나아졌으며 무척이나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한국항공대에서 주최해주는 이러한 3중 멘토링 활동은 새내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 외에도 선배와 후배, 동기들끼리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멘토가 바뀐 후에



도 저는 꾸준히 전 멘토 선배들과 연락을 하며 도움을 받고 학교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친밀한 관계,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항공대는 방학 동안 수시 합격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감이 안 오던 저에게는 이 과제가 마냥 귀찮은 것이 아닌 한국항공대 신입생으로서 학교에 첫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학교에 관한 소개, 설명과 더불어 내주신 코딩 과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문과인 저에게는 코딩 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재미와 희열이 지금 듣고 있는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 수업에 밑바탕이 되어 주었으며 공학 계열 쪽에 관심이 없던 제가 학교 내 코딩 동아리에 가입해 매주 월요일마다 동기들과 함께 코딩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자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2월 말에는 새내기 배움터를 갔습니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친구를 사귄 수 있을지 무척이나 걱정을 많이 했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일차에는 총장님, 교수님의 축하 말씀과 학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의 미래와 앞으로 내가 4년동안 준비하고 챙겨야 할 것들, 직속 선배들의 취업 후기와 경험담이 담긴 동영상 시청하며 의미 있는 조언들을 새겼습니다. 1일차 저녁과 2일차에는 항공대의 여러 가지 동아리 홍보 부스 체험과 선배들이 준비한 공연들을 관람하며 구경하였고 동기들과 친목 도모를 하며 대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같은 방 선배, 동기들과 2박 3일을 지내니 나이와 상관없이 다 함께 연합하고 친해졌으며 지금까지도 같은 수업을 들으며 학교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개강하기 전 학교 공식 인스타를 찾아보며 동아리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항공대학교답게 항공, 비행하는 활동의 동아리들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동아리는 열기구 동아리 "리퓨타"였습니다. 국내 유일 열기구 동아리였으며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른다는 생각을 하니 무척이나 설렘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봉사 동아리 "PTP"가 여러 학교와 연합하며 봉사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으며 이 두 가지 동아리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학교 생활을 하며 정보를 더욱 찾아보고 제가 필요한 것을 알아가보니 어느덧 코딩 동아리 "IPR", 경영학부 운동 소모임 두 개까지 합해 총 5개의 활동을 하게 되며 새내기의 패기와 열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항공대만의 특색 있는 동아리 활동 외에도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와 학교와 연결되어있는 단체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며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해 여러 가지 경험을 누릴 것이고 항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꼭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개강을 하고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실력이 좋은 젊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많이 맡아주셔서 유쾌하고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만 수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해결, 경영학도를 위한 대학 수학 등의 수업에서 젊은 교수님들을 마주할 수 있었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 5위안에 든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며 저도 벌써 2번 정도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항공대만의 제도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3월에 개강을 하여 어느덧 한 달간의 1학년 새내기 생활이 끝났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수강 신청,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생활을 하니 눈 깜짝할 새 저의 한 달간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내년에 새롭게 24학번으로 입학할 예비 항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항공대 논술을 준비하면서 신기했던 점은 항공대는 미래 인재 전형보다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의 경우 논술 전형의 인원수는 다른 전형보다 극히 드물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고 예비 번호가 거의 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대는 논술 전형의 인원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으며 타 학교에 비해 추가 합격이 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에도 힘을 써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합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2합 6으로 최저 기준이 내려가 아무래도 최저보다는 논술로 합격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





능 준비를 하며 항공대만의 논술 스타일, 추구하는 방향성에 집중하고 연습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다시피, 원고지 없이 논술을 써보며 글자수, 분량을 맞추는 기본적인 조건들도 열심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최저로 영어와 사회탐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어와 영어로 최저를 맞추게 된 것처럼 최저를 맞추는데 있어서 특정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모든 과목들을 훑어주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논술의 경우 사회 탐구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개념이 있기에 사회 탐구를 공부하면서 주요 단어들과 개념을 외우고 이것을 논술에 잘 녹여 내는 것도 논술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입시를 준비하면서 낮은 내신이라도, 최저가 불안해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끌고 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결과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1년동안 친구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좌절하고 속상해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매순간 임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점 같습니다.

총장님의 말씀처럼 항공대는 작지만 강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작은 인원수와 캠퍼스 크기, 그렇지만 국내 유일 항공 우주 특성화라는 강점, 잠재력을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기대되며 저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을 보러왔을 때 학관 옆 비행기를 보면서 느꼈던 벅차오름을 잊지 못하며 앞으로 펼쳐질 한국항공대의 미래가 매우 밝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후회없이 준비하고 공부하며 예비 항대인들이 2024년에 밝게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